

- ◆… A型 肝炎은 직경이 27㎚이고 RNA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A型 肝炎…◆
- ◆…바이러스 感染에 의하여 초래된다. 증상은 發熱이라든지 전신권태감, 식욕감…◆
- ◆…퇴, 구토, 복부불쾌감 및 황달이 급격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그…◆
- ◆…정도는 나이에 따라 다양하다. 즉 소아에서는 흔히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 ◆…황달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층에서는 대부분 황달과 전신증…◆
- ◆…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型 肝炎의 진단은 혈액에서 A型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검출함으로써 가능하다. 현재 감염된 경우는 IgM型의 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나고 과거에 앓아 면역된 사람은 IgG型의 항체가 증명된다. A型肝炎의 과거력을 반영하는 IgG anti-HAV를 일반인에서 검사하여 보면 위생환경이 불량한 하류층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양성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A型肝炎은 생활수준 및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A型肝炎은 주기적으로 유행이 반복되는 수가 많고 소아 연령층에 가장 잘 생길뿐만 아니라 도시보다 시골에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집안에서도 식구끼리 접촉하는동안 감염되므로 가족 내에 밀접하여 발생하는 유형 양상이 흔하다. 우리나라에는 20세이상의 정상성인의 대부분에서 IgG anti-HAV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국민 대다수가 소아기에 알게 모르게 A형을 앓고 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B型뿐만 아니라 A型肝炎의 유행 지역임을 반증하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A型肝炎 바이러스는 A型肝炎에 걸린 환자의 대변으로 배설된다. 그 시기는 황달이나 타나기전 2~3주간동안 대변으로 배설된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에 왔을때에는 이미 배설이 끝나 더이상 감염성이 없는것이 보통이고 그전에 접촉하였던 사람들�이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혈액내에서도 대변에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가 잠시 증명될수 있지만 그 지속기간은 극히 짧고 또한 A형은 B형과 달리 만성적인 바이러스 보유자도 없

으므로 혈액을 통한 經注感染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A型肝炎의 예방은 첫째,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로 알고둘째, 개인및 환경위생을 개선하며 셋째로 적당한 시기에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것으로 대별할수 있다.

감염경로

A型肝炎은 바이러스가 대변으로 배설되어 나오므로 대변 성분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음으로써 감염되는 것이 보통이다 (fecal-oral route). 이러한 감염은 개인이나 일반위생 수준이 낮거나

이나 저능아 수용소같은 비위생적인 집단생활에서 A型이 감염될 가능성이 특히 높은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행지역에서 성인들은 모두 A型에 이미 면역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감염경로는 특히 소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스는 100°C 끓는 물에 1분만 끓으면 죽기 때문이다. 먹는 물도 끓여 먹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적인 조리과정을 거치면 바이러스는 죽게 되므로 대개 A型은 잠복기의 환자가 다른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지 않고 먹으므로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조개같은 어패류는 삶더라도 A型을 전염시킬 수 있



徐東震

<고려의대 내과 교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전교생이 면역 글로불린을 맞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밀접한 접촉자에게는 가능하면 노출후빨리, 2주 이내에 면역 글로불린을 체중 kg당 0.02ml 근육주사 하여야 한다. 자녀중 한 아이가 A型 간염이라면 나머지 건강한 형제들이 접종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성인의 대부분이 A型에 자연 면역이 되어 있으나 A型 간염이 드문 선진국에서는 간염 유행지역으로 가는 여행객에게 미리 A型에 감염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하도록 권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오기전에 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다. 3개월 미만의 단기간 체류자는 체중 kg당 0.02ml의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하지만 그 이상의 장기 체류자는 체중 kg당 0.06ml의 양으로 每4~6개월마다 면역 글로불린을 반복 주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B型肝炎은 백신의 개발로 그 예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 A型도 백신 연구가 활발하지만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A型 바이러스가 배양되고 동물 실험상 효과가 있는 백신이 제조되고 있으며 조만간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리라고 기대되고 있다. A型肝炎 백신이 개발되면 B型과 마찬가지로 소아를 모두에 접종하므로 보다 적극적인肝炎의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다.

A型肝炎의 예방

성인층에서는 대부분 황달과 全身症狀이 나타나 免疫글로불린注射로 A型肝炎 80~90%豫防

여러사람이 밀접되고 더러운 환경에서 초래되기 쉽다.

더러운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대변성분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 우유 및 어패류를 먹음으로써 바이러스가 몸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腸內感染은 가족끼리라든지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군인들 사이에 흔히 초래되기 쉽다.

어린아이들은 대변보는 습관이 익숙치 않아 손이 오염될 수 있으며 또한 오물로 더럽혀진 흙을 가지고 놀다가 씻지 않고 손을 빼는것이 감염경로가 될수있다. 파자나 껌을 더러운 손으로 장난하며 돌려먹는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학교주변의 불량식품도 감염원이 될수있다. 파리나 바퀴벌레 같은 곤충이 화장실과 식탁을 오가며 바이러스를 음식에 오염시킬수 있다. 따라서 한 가족내의 어린 형제 자매 사이에 A型이 전염될수 있으며 고아원

배려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파경로의 차단

일단 A型肝炎으로 진단된 사람은 간단한 위생조치로 다른 사람에게 간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대변내로 바이러스가 배설되는 발병초기에 전염에 유의해야 한다. A型 간염의 전파는 비위생적인 경로에 의하여 초래되므로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의 청결이 예방의 지름길이 된다. 가장 경제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것이다. 용변을 본 후 라단지 식사전에는 꼭 어린 아이들에게 손씻는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음식을 만들 때에도 손을 잘 씻어야 한다. 환자가 먹은 식기는 끓는 물에 끓이며 옷이나 침대 덮개는 삶아 빼는 것이 좋다. A型肝炎 바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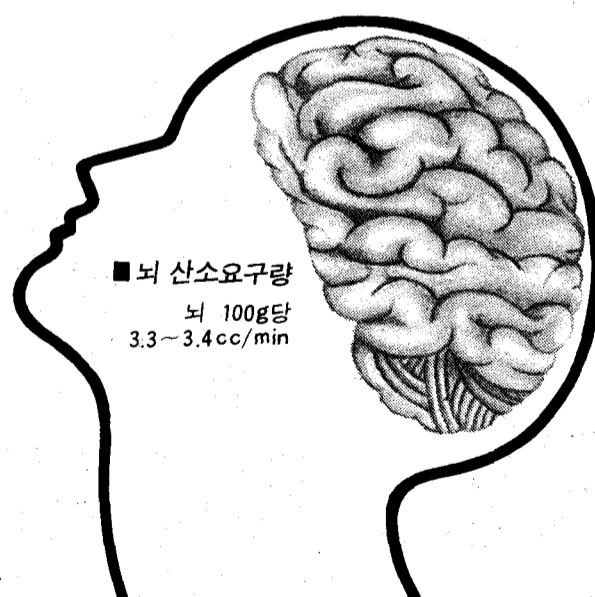
는데 이는 겹질만 덥히고 속의 살은 충분히 끓이지 않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A型肝炎 환자의 대변은 간염성을 고려하여 다룬후 손을 씻거나 미리 고무 장갑을 끼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대로 다른 어린애를 다루면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

어른을 공경하여 효도를 실천하자.

뇌졸중 증후 만신불수

- 만성 두통
- 지각장애
- 현기증
- 노화증후군
- 연탄까스증독 후유증
(언어장애·수전증·기억력장애)



뇌에 맑은 산소를!

BELGIUM UCB 뇌기능 대사 촉진제

뉴트로필®

Rx Nootropil 2.4g/day p.o for 6 weeks

5大 藥理作用

1. 물질대사 촉진작용

산소 및 포도당의 이용율을 증가시켜 뇌신경세포의 물질대사 촉진을 시켜 줍니다.
(Rouquerol B. et al FRANCE)

2. 신경전달 촉진작용

유발 전위에 작용하여 반구정보를 전달합니다.
(HERRSCHARFT H. et al GERMANY)

3. 혈소판의 과잉 억제작용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유착을 방지하여 제증상을 개선하여 줍니다.
(Barnhart et al. U.S.A.)

4. 적혈구 변형 유동력 증가작용

적혈구의 변형성을 증가시켜 말초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줍니다.
(Skondia V. et al BELGIUM)

5. 저산소시 뇌기능 보호작용

말초혈행을 정상화시켜 다발성 기질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C. Giurgena and Coll. BELGIUM)

